

보도 일시	즉시 보도 가능	배포 일시	2022. 6. 9.(목)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책임자	과 장 허만욱 (044-200-5710)
	해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시덕 (044-200-5721)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 우리 기업이 맡는다 -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4척 대선계약 체결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H-Line해운, 팬오션, SK해운으로 구성된 한국 컨소시엄이 카타르의 국영 에너지 기업인 카타르에너지(Qatar Energy)로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장기운반 계약을 수주하고, 그 중 4척에 대한 대선계약을 우선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주는 국적선사간 한국 컨소시엄을 구성·협력하여 해외의 대형 액화 천연가스(LNG) 운반선 장기 프로젝트를 수주한 첫 성과로, 국적선사들은 이번 수주를 바탕으로 향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운송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우리 조선업과의 동반성장 효과도 예상된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조선산업의 기술력과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운영 선사의 유능한 인력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운송 경험이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적극적인 노력과 해양수산부, 정책금융기관, 한국 해양진흥공사 등 정부·유관기관의 지원이 더해진 결과이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프로젝트의 수주는 3개 해운사의 컨소시엄 구성, 정부의 외교적 노력, 그리고 공공기관의 경쟁력 있는 금융지원이 시너지를 발휘한 민관공 협업 성공모델로서, 조선·해운의 상생협력을 강화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참고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사진

